

2017 고위급정치포럼(HLPF) 주요 내용 (의장 요약 보고서)¹

번역: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문도운

1. 서론

2017년도의 HLPF는 유엔 총회 결의안 SDGs 이행 검토와 후속 조치에 관한 70/299 채택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서 SDG17과 함께 목표 1, 2, 3, 5, 9, 14를 점검하는 첫 연례 포럼.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빈곤 근절과 번영의 증진”이라는 주제로 SDGs와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3개 축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크로스커팅 이슈와 새로운 문제들을 검토하였음.

43개 국가가 자발적국별평가에 참여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유엔 시스템과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이행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첫 지속가능성 고위담당관 포럼(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Forum), 147개의 부대 행사, 교육 프로그램, 특별 행사 및 민간 기업 부문 워크숍과 포럼, Partnership Xchange 등을 주최함으로써 HLPF에 기여하였음.

2. 이행 2년 차 현황 점검

세계는 경제 규모가 127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전례 없이 발전하고 세계화와 기술을 통해 빈곤 근절,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질병 퇴치와 인프라 구축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세계의 부는 불평등하게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기근, 사회적 취약성을 비롯한 국제적 문제들이 존재함.

국제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은 강화된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SDGs의 이행은 궁극적으로 각 국가의 책임임. 이와 관련한 SDGs 이행 2년치의 분명한 성과는, 각 국가가 SDGs를 국가 전략과 계획 과정에 통합시키며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SDGs의 전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이 증진되고 있으며 통합적 성격의 SDGs에 맞게 기후 변화, 재난위험경감, 무역과 인권에 관한 국제

¹ 본 번역본은 ECOSOC 의장의 2017 HLPF 요약 본을 간추려 번역하였음.

ECOSOC President's Summary of the 2017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673HLPF_2017_Presidents_summary.pdf

기준과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음.

향후 과제로서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빈곤과 기아, 영양실조가 꼽힘. 7억 6천 7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1.90 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빈곤과 함께 분쟁과 다른 구조적 문제들에 의해 복합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한 1인당 소득 지표 외 교육, 보건, 수명 등을 포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됨. 환경 분야 과제로서는 기후 변화가 자연 재해와 전염병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 문제가 건강에 미치는 문제, 특히 군소도서국가를 중심으로 해양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언급되었음.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 통합의 부족과 불평등의 확대가 과제로 남아있음. 특히 청년, 선주민, 노인, 농촌 노동자, 장애인, 분쟁 지역의 주민이 취약하며 이주민이 겪는 위험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많은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의 기본적 권리가 박탈되어 있으며 과도하게 기후 변화, 재해 및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조혼과 할레와 같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는 동시에 여성과 여아를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으로서 인식해야 함.

이행수단 관련, 많은 국가에서 ODA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불법 금융 흐름을 규제함과 동시에 국내 재원을 동원해야 하며 금융계와 민간 기업 부문이 SDGs 이행을 위해 투자에 참여해야 함.

이 밖에 공식 통계, 데이터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가 성과의 측정에 있어서 남은 과제로 제시되었고 과학 기술과 지식, 노하우 역시 활용해야 함.

3. 지역별(regional) 및 소지역별(sub-regional) 이행

남남 협력, 동료 학습, 경험 공유를 포함한 지역 협력과 통합은 SDGs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 국내와 글로벌 차원의 이행을 연결하는 대륙 별 지속가능발전포럼(Regional Forums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간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별로 성과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국가들은 범지구적, 범분야적 조정을 위해 노력했고 지속발전전략을 채택했으며 의회는 SDGs를 주류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모든 지역에서 여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가 강조되었음. 여성의 고용 및 정치 참여를 증진하고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이 필요함. 참여국들은 국내 자원 동원과 조세 피난처를 규제할 수 있는 세무 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음.

4.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빈곤 근절과 번영의 증진

A. 빈곤과 불평등의 다면성

빈곤의 다면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빈곤과 의료, 교육, 경제적 기회, 여성의 자력화

(empowerment), 주거, 천연자원 관리 사이에 직접적 상관 관계가 있음.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통한 성과가 있었으나 불균등하여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이 SDGs 이행의 근본 원칙으로 간주되며 특히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양질의 세분화된 데이터는 기후 변화, 환경 파괴와 오염과 빈곤 문제를 함께 다루고 특정 목표에 맞게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임. 전통적 소득 기반 지표를 넘어 국내 빈곤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다차원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MPI))의 유용성도 언급되었음.

B.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SDGs 의제 수립과 국가 이행에 중심적 역할을 함. 앞으로 정부는 SDGs 이행의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과 옹호의 주체로서의 주요 그룹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이행과 검토 과정에 통합해야 함.

이해관계자들은 성평등과 함께 장애인, 노인, 선주민, 청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함. 이를 위해 자선, 공채, 채권, 시장 기반의 국가 보장, 인센티브, 보험과 같은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함.

C. 사모아의 길(SAMOA Pathway)

군소도서개발국에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위 정치적 의지와 지원, 협력이 필요함. 중기 정책 틀과 예산을 포함하여 SAMOA Pathway와 SDGs를 국내적으로 주류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역량을 높여야 함. 특히 이해 관계자 참여와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핵심적이며 태평양 비전염성 질병 로드맵과 같은 지역(regional) 이니셔티브는 질병 감소, 흡연 규제, 비만 퇴치, 영양 및 식량 안보 개선, 보건 재정의 효율성 개선,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다루는 역할을 할 수 있음. 한 사례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안보 및 영양 관련 글로벌 행동 프로그램 (GAP)을 SAMOA Pathway의 성공적 이행 사례로 소개함.

D. 특수 상황에 있는 국가 및 중간소득국

일부 국가에 한정된 SDGs 달성은 진정한 전환의 실현이 아닌 바, HLPF는 가장 소외된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특수 상황에 있는 국가들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개발 재원을 동원하고 각 국의 특정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어야 함. 새로운 자원, 기술, 서비스의 거래 가능성, 인구학적 변수, 파트너십으로 빈곤 퇴치를 촉진하고, 국내적으로는 역량 부족, 책무성, 탈세, 불법 자금 흐름, 협력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같은 문제를 구조적인 협력 하에 다루어야 함.

소규모 농업에 대한 투자는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과 분쟁 국가에서 복원력을 회복하고 건강 및 복지, 성평등과 권한 부여,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SDG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수단일 수 있음. 분쟁 후 국가의 경우 개발 계획의 분절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내륙개도국의 문제는 교통 수단의 개선을 통해 새롭고 적합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됨.

세계 인구의 75%, 세계 GDP의 1/3, 수출입산업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소득국(MIC)의 분류는 1인당 소득을 넘어 수명, 제도적 발전, 취약 계층, 실업, 기술의 발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중간소득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발전과 분쟁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5. 특정 SDGs 달성 성과의 평가

SDG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과는 더딘 편임. 세계 인구의 절반 이하만이 사회 보장 체계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절대 빈곤이 농촌 지역과 아동에 집중되어 있음. 재난의 위험이 저소득, 하위중간소득국에 집중되어 있고 군소도서개발국이 재난의 영향을 불균등하게 받고 있는 한편, 최빈국에서는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과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양질의 일자리, 보편적 사회보장, 맞춤형 빈곤 감소 노력, 양질의 교육이 핵심적인 수단으로 제안되었으며 각 국가에서 제도와 거버넌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안정적인 에너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빈곤 퇴치를 위한 선행 과제로 제시되었음.

SDG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 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현재 상태로는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경의 밀접한 연관성과 함께 식량, 환경, 물과 위생, 기후 변화, 사회 정의, 건강, 평화, 안정성이 모두 연결된 문제로 인식됨. 기후 변화, 분쟁, 정책과 공정한 토지 사용권의 부재, 불충분한 투자가 식량 안보 보장의 장애물로 지적됨.

식량 문제를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고 생산과 소비를 모두 검토해야 함. 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영양 부족이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남아있으며 비만과 성인병은 건강관리제도의 부담을 가중함.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교육, 조세 제도, 표시(labeling)제도를 통해 행동 변화를 장려해야 함. 식량 시스템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소규모 영농인들의 지식을 보강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포용적 정책과 인권기반접근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실행하고 여성의 자력화를 증진하는 것이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경의 실현에 핵심적임.

SDG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많은 핵심 지역에서 성과가 있었던 반면, 청소년, 선주민, 노인, 분쟁 및 분쟁 후 국가, 농촌 노동자, 장애인 등 여전히 소외된 계층이 존재함. 보건 문제에 내재한 범분야적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권기반접근, 낙인 효과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인지 제고, 조혼과 성 및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여성의 자력화 노력, 기후 변화와 오염, 재정 메커니즘, 기술, 혁신을 동원하여 목표 달성에 노력하여야 함. 일부 국가에서는 UN의 지원 체계를 포함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함.

SDG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HLPF는 목표5를 목표이자 다른 목표 달성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고 여성의 자력화가 빈곤의 사슬을 끊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공유함. 차별 금지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있었던 반면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구조적인 폭력, 조혼, 가사 부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가 만연하고 특히 여성이 무력 분쟁과 정치적 불안정의 피해를 떠안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장기적 계획과 지역화된 목표,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폭력 문제를 다루고 노동시장과 의사 결정에의 참여와 건강을 증진해야 함. 또한 지식 공유와 SDG5 지표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는 한편 기존의 북경행동강령(BPfA),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여성지위위원회(CSW)와 같은 관련 메커니즘 및 비정부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

SDG9 복원력 높은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탄탄하고 계획적인 인프라의 중요성과 함께 제조업이 경제 성장, 고용, 사회 안정의 주요 원동력으로 간주되었으며 교통, 정보, 통신 기술, 전기, 물, 위생의 역할도 강조되었음. 산업화 증진을 위해 파트너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구축과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원, 기술 이전을 보장할 것이 요청되었고 혁신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재정과 ICT를 비롯한 지원을 제공하고 산업에 맞는 정책 조정, 사회 기반 시설의 역할을 인지해야 함. 포용적 성장을 위한 무역 제도를 구축하고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제거하면서 개도국의 중산층의 역량을 제고해야 함. 또한 인프라의 개발이 환경을 해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인프라가 사람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SDG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해양 컨퍼런스(Ocean Conference)는 해양이 인류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보호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많은 국가에서 보호와 동시에 어획량을 늘려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기후 변화, 남획, 해양 오염이 주요 문제로 남아있음. 군소도서국가가 당면한 특별한 문제들과 같이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해양 컨퍼런스의 성과로서 행동 촉구 선언(Call for Action)의 채택과 함께 1400여 개에 이르는 자발적 공약을 통해 파트너십을 창출한 것이 보고됨. 2020년에 포르투갈과 케냐가 제2회 해양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같은 해에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함께 활용할 예정임. 유엔해양법조약 하의 구속력 있는 제도의 활용, UN-Oceans의 위임 사항 개정이 국제적 조치로, 비닐 봉지 금지 및 쓰레기 감소,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국가 차원의 조치로 제안되었음. 특히, 선주민과 지역 주민의 지식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것, 지역 공동체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SDG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 SDGs 달성을 위한 투자와 자원 마련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해야 함. 최근 2년 동안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의 이행에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행동계획의 7가지 분야가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점차 많은 국가에서 행동계획을 국가 계획에 통합시키고 있으며 통합적 국내 자원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구체적 사례도 공유되었음. 한편 2017 ECOSOC 개발자원후속포럼(FfD Forum)을 통해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기후,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포용성과 다자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지를 확인함. 향후 민간 기업 부문의 투자와 참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재정적 혁신을 장려하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해야 함. 이를 위해 다양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민간 기업 부문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 자원과 혼합 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제시됨. 투명성과 공공의 감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UN 차원에서 책무성 메커니즘을 비롯해 민간 기업 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음. 또한 SDGs 달성을 위한 재정과 투자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닌 제도와 거버넌스의 문제라는 점을 주지하였음.

- 과학, 기술, 혁신(STI)의 증진

국가와 글로벌 차원에서 유연하고 참여에 기반한 과학, 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투자를 늘려 과학적 생산성과 인류의 역량을 증진하면서 청년과 여성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함. 과학자와 혁신가가 기존의 저비용 기술과 관련 지역 공동체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대두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 분야의 의견을 보호하고 과학을 위한 열린 공간, 보편적 접근, 지식 공유, 국제적 투자를 보장할 필요성이 언급됨. UN 기술협력메커니즘과 STI 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위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민간 기업 부문의 참여를 위한 현재의 접근법은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STI 관련 민간과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혁신적 구조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음.

6.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상호 연관성의 강화

SDGs 목표와 세부목표의 상호 연관성이 SDGs 이행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진정한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 일관성 및 조정이 필수적이며 범분야, 범정부적 접근이 시너지 창출과 구체적 성과 달성에 핵심적임. 이러한 정책 조정은 투자와 예산 배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통합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성과와 책무성 측정에 기여할 수 있음.

많은 국가에서 데이터 맵핑과 제도적 조정을 이행의 시작점으로 삼았으며 다수의 예산 일치 도구가 소개되었음. 그러나 향후 과제로서 상호 연관성 분석과 증진을 위해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남아있음.

동시에 SDGs와 함께 파리협약, 샌다이프레임워크, 비엔나 및 이스탄불행동계획, 사모아의 길,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 간의 상호 보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SDGs 이행에 핵심적임이 거듭 확인됨.

7. 과학과 정책의 접점 및 새로운 과제

SDGs 이행에 있어 과학과 기술, 혁신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의 잠재성이 강조됨. 과학, 기술, 정보의 역량 격차를 확인하고 국가와 지역(regional) 차원에서 과학 정책 인터페이스를 수립,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새로운 과제로서 이주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이주민의 권리와 사회의 포용 필요성이 사회 통합과 SDGs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음이 언급되었음.

8. 자발적국별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HLPF 각료 회의 동안 43 개국*이 자발적국별평가에 참여함.

*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벨기에, 벨리즈, 베냉, 보츠와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케냐,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나코, 네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파나마, 페루, 포르투갈, 카타르, 슬로베니아, 스웨덴,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우루과이, 짐바브웨.

자발적국별평가의 준비는 각 국의 최고위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유용하고 영향력 높은 이행 수단의 하나로 여겨졌음. 공통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시민 개개인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의 주인 의식(ownership)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음.

SDGs에 대한 정책 수립은 국가들이 직면한 사회, 경제 및 환경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및 전통적 지도자, 오피니언 리더, 언론 및 정치 지도자가 참여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검토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들이 공유되었고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SDGs를 국내화, 지역화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지자체의 참여가 이미 활발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지역 단위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음.

SDGs 목표 내, 목표간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이 정책과 예산, 제도적 구조 수립에 중요하다는 점이 주요 원칙으로 간주되었고 높은 정치적 의지와 범정부적 접근, 통합되고 조정된 조치가 분절화와 중복 방지를 극복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가들은 청년과 소외된 계층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파트너십의 증진의 중요성과 함께 특히 재정적 제약이 있는 국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적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음.

전반적인 이행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ODA와 같은 전통적인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원을 모색할 시급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조세 회피, 부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됨.

데이터의 역할이 크게 강조됨과 동시에 데이터 취합, 세분화, 분석, 보급을 위한 역량 강화와 투자가 세부목표와 지표를 지역화 하는 것과 함께 우선 과제로 꼽힘. 많은 국가에서 국가 통계 기관의 참여를 보고했으나 아직 국가별 역량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점검과 조치가 필요함. 다양한 모니터링, 평가 기제를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하면 데이터 취합의 중복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sub-national),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데이터 생태계를 강화해야 함. 특히, 데이터 세분화와 비 전통적 지표 개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2017 년도 세션을 통해 SDGs 후속 조치와 평가의 글로벌 플랫폼이자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조와 파트너십 증진의 장으로서의 HLPF의 위상과 역할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음.